

국민보건 증진을 위한 사회 보건 단체의 홍보활동

국민보건증진을 위한 홍보전략 개발세미나 발표 (마지막회)

이 관 영

이처럼 적극적인 홍보계몽활동과 사업을 통해 많은 발전을 거듭해 온 건협은 보다 발전적으로 국민보건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첫째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는 Mobile Team을 구성·운영하고 이를 위하여 지역·대상에 맞는 자료를 개발해야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홍보관을 보다 활성화시켜야겠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지부에서만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홍보관을 각 시도지부에서도 정기적인 건강강좌 개설 등을 통해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홍보전문요원을 확보해야겠다는 것이다.

셋째는 2차홍보를 강화시키기 위해 내원자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겠다는 것이다. 즉 평생건강관리를 위한 수

검증 발급, 정기적 홍보물 송부 등에 철저를 기할 것이다.

넷째는 보다 확고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회의 사업이 국민건강검사를 통한 국민보건증진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저촉 등 홍보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익획득이 아니라 국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본회의 이념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외에 사회보건단체로서 나타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의 해결과 함께 향후 건협사업의 방향은 유아기 때부터의 건강관리를 위한 기반구축에 맞추어져야 한다고 본다.

성인병의 원인이나 결과를 보면, 유아기부터 그 원인이 축적되어 성인이 된 후 발병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아기 때부터 그 원인 발생을 예방한다면 현대의 예방의학적 측면의 국민보건증진에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으리라 생각된다.

일본의 경우, 이미 오래 전에 기생충 예방회를 예방의학중앙회로 바꾸면서 건강관리사업을 정착시켰으며 특히 영유아에 대한 정기검사를 정착시킨지도 오래 되었다. 이것은 생활의 변화에 따라 성인병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낮은 연령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어 어릴 때부터의 관리가 적절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의 귀결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요즘 들어 우리나라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어린이 심장병이다.

지난 해 체력장 시험중 오래달리기를 하다가 돌연사한 학생문제가 신문지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이것은 학생들 개개인의 건강상태, 특히 심장질환에 대한 사전 인식없이 일률적으로 체력장을 행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 이후 체력장의 존재여부, 사후책임 문제로 많은 의견들이 나왔으나 무엇보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학생들에 대한 사전 검사를 통하여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불행한 사태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에 부응하여 우리나라도 유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학생 건강관리만이라도 정착화 시키는 것이 미래의 건강관리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 할 수 있다.

Ⅲ. 결 론

이상에서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사회보건단체의 국민보건증진을 위한 홍보계몽활동에 관하여 생

각해 보았다.

국민건강관리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각 사회보건단체가 행하는 계몽활동은 단순히 단체 나름의 사업을 홍보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국민의 보건의식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해야 하며, 이것이 곧 국민보건을 증진 시키는 하나의 길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따라서 국민보건증진을 위한 사회보건단체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으며, 이 사회보건단체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대민 홍보계몽활동을 보다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보건단체간의 밀접한 협조체제를 더욱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 매스컴의 P·D에게 국민보건증진을 위한 계몽의 필요성을 보다 정확히 인식시킴으로써 매스컴과 사회보건단체와의 밀접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보건교육을 정착시키는 것이 오늘날 국민보건계몽의 활성화에 필요불가결한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 (끝)

